

산업보건의 교육·훈련에 관한 제1차 국제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카나다 맥매스터대학교 주최
세계산업보건협회 후원)



연세의료원 문영한
산업보건연구소 소장

산업보건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은 작년(1986) 봄부터 알려져 있었다.

개최지가 카나다이고 맥매스터대학교라는 점에서 생소하게 느껴졌고 정중한 내용이 담긴 초청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1987년 5월 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심한 것은 작년 10월부터였다.

그런데 일정으로 봐서 미국산업보건협회가 주최하는 산업보건학술대회가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1987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수속을 밟아 양쪽 학회에서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 더우기 미국산업보건학회는 본인이 1986년 2월에 모든 수속 절차와 추천을 받아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인연도 있고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었으나 여권 발급을 새로 하 받아야 하는 것과 카나다와 미국의 입국비자(단수가 아닌 복수비자)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카나다의 산업보건학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다.

카나다 학회는 카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시에 있는 맥매스터 (McMaster University)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발표순서는 5월 5일로서 세계각국의 산업 보건 교육현황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프로그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은 Occupational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in Korea의 제목으로 약 20분간 발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서울 김포 비행장을 출발해서 시카고를 거쳐 약 17시간만에 카나다 트론토비행장에 도착했는데 시차관계로 바이오리듬 (Bio-rhythm)이 깨져서 피곤을 면치 못했다.

4월 3일(일요일)부터 등록이 시작되었고 4월 4일(월)에 개회식이 있었는데 온타리오 주지사와 세계산업보건협회의 교육훈련분과위원장인 Phoon 박사와 McMaster 학교측에서 부총장인 맥카라 박사가 개회사 및 축사를 하였는데 개회식을 시작할때에 스코트랜드의 파이프악기(Bag pipe)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행하였던 것이 이색적이고 인상적이었으며 영국의 연

방(common wealth)으로서 잔재를 문화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학회의 진행은 조직위원장인 Muir 박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교육방법(teaching method), 세계각국의 산업교육현황(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특정그룹별 산업보건교육(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 the needs special groups)의 4 가지 분과로 53연제가 발표되고 토의되었다. 그리고 미국, 스웨덴을 비롯한 18개국에서 95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Phoon 박사는 산업보건교육과 훈련에 관한 신화적인 문제와 실제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다같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유효성 있게 교육을 실시해 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각국 사정에 맞추어서 수행하고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맥스터대학의 산업보건학 학위과정 설명에서 Muir 박사는 산업보건과 안전에 관한 교육 과정에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3개월간의 Full-time 과정이 있고 8개월의 part-time 과정이 있으며 수강대상자는 의사와 4년제대학 졸업한 산업위생사, 간호원들이며 산업간호학 분야는 산업간호학 수료증명 과정이 있으며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하계강좌가 약 1개월간에 걸쳐서 매년 7월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산업위생분야의 A Post-Diploma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Distance Education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영국의 Ivany 박사는 산업보건의 계획과 교과 과정 작성에 있어서 학교이외의 사업장의 대표자, 정부관리,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그들이 내놓는 계획안을 조정해서 교안을 작성함을 소개하였으며 실제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검사분석실에서의 실습을 위주로 하고 쎄미나나 회의의 방식을 지양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Markiewicz 씨는 미국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대학에 가서 소정의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따는 논문을 써서 얻는 학위과정 이외에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거리상 불편하고 충분한 지식을 획득치 못한 사람을 위한 비전통적 학위과정을 마련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했는데 우편을 통해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방송통신 강좌가 연구 검토했다고 보고하였다.

핀란드의 Kirsti Launis 씨는 산업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보건 훈련의 실제 필요성 검토를 하는데 Helsinki의 산업보건연구소에서는 “The Developmental Work Research”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소개했는데

1) 현실행동(actual action)

↓

2) 작업공정에서의 산업보건학적 지식적용의 분석

↓

3)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모형이 개발 분석
검토되면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

4) 새로 모형을 응용하는데 힘쓰고

↓

5) 행동으로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영국의 Lee 씨는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에서 대상자는 제1차 진료의사나 가정을 가진 여자 의사들인데 시간이나 거리상 관계로 산업보건의 전문교수요원에 연관성을 유지시키고 실무적인 의료기법을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 내용의 4개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즉,

1) 유인물 배포

2) 쎄미나

3) 교육(강의)

4) 실기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수업생은 1년에 4번 쎄미나에 참석해야 하고 벽지에서는 telephone seminars 을 함을 소

개하였다.

5월 5일의 학회일정중에서 일본의 Okubo 와 Tsuchiya 씨는 일본산업의 과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7개과와 22개의 연구부서가 산업보건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공의 대표 He 박사가 중공의 산업보건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들은 약 10년전부터 북경에 있는 중국 예방의학학회 산하에 있는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산업보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1) 기초훈련을 위해서 26명의 공중위생학 교수요원이 동원되고, 2) 특기 훈련을 위해서 3년간의 산업보건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있고, 의사(M.D.)들에게는 2년의 추가 과정이 있다고 하였고, 3) 직무훈련에서는 -1~3주간의 단기과정이 산업장 의사나 위생사에게 부과되는데 WHO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체 힘으로 중점분야에 대해서 실시된다고 하였으며,

Shi 박사는 중공의 북경의 과대학의 산업보건학과 교수로 있는 분으로서 중공의 의과대학 교육과 산업보건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중공은 1949년부터 예방의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고시를 거쳐 의과대학에 들어오는데 6년간의 수업기간이 있고 1983년 보건사회부는 6개 명문대학에 6개의 산업보건훈련센타를 설치했으며, 직무교육을 위해서 장기, 단기 과정이 있는데 각지방에서 6개월간의 과정이 있다고 보고하고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제7차 5개년계획에는 95개반의 직무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약 4,000명의 특기자를 양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불란서의 산업의학에 대해서 Caillard 박사는 1957년부터 산업장의 의사는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 졌는데 1957년부터 1977년까지는 의사들의 Diploma는 1년 교육이 끝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는 4년으로 Resident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첫 2년간은 일반진료에 종사하되 특히 병원내의 산업보건과에서 산재환자 진료를 하고 노동생리, 중독학을 공부하고 외부 산업장에서 산

업장의사의 감독하에 실습을 하고 노조활동, 의료보험행정, 산업보건 및 공해연구소에서 실습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노르웨이의 H.Ebelfobt 씨는 Birmingham 대학에서의 개업의들에 대한 산업보건학 강좌를 소개했는데 임상의학의 한특과 분야로된 산업의학의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어 1985년 12월에 Birmingham 대학교에서는 산업보건연구소 주최로 5일간의 단기 교육과정이 설치되는데 2.5일의 과정 2개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2,000 단어이상으로된 논문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말하였으며 대상자의 84% 이상이 일차 진료의사이고 1/3이 50세이상자들이었다고 하였다.

산업보건에 관한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을 위해서 카나다의 Morrison, Schefski, Halton 등이 산업보건에 관한 정보와 컴퓨터화한 데이터 베이스(Computerized Data Bases),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평가에 대해서 발표가 있고 토론의 광장을 벌리고 실제로 있어서의 경험을 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Halton 씨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략적인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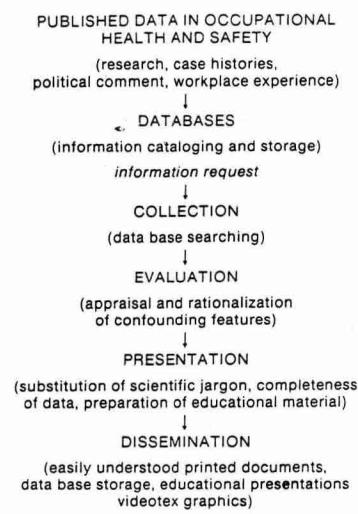


Figure 1 —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information demands in occupational health.

다음은 특상으로 스웨덴의 국립 산업 보건 연구소의 전소장이었던 Forssman 박사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는데 국제적인 산업 보건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논하였다는 바, 산업 보건에 있어서의 교육의 문제점, 산업 보건 요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이에 관련한 세계 각국의 현황들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 보건의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케 하고 산업 보건 서비스의 활동 방향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산업 보건 서비스의 목표에 대해서

- 1) 직업 성재해와 직업 병의 원인의 규명과 조정
- 2) 일반 질병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요인을 조사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 3) 인간 공학 등을 이용해서 직장에서의 직업에 대한 적성을 높여서 신체적, 정신적, 적응력을 배양하고
- 4) 신체에 결함이 있는 불구자들의 효과적인 보호책과 건강 유지를 확보해 주고

5) 직장의 여러 가지 조건을 향상시켜서 직장에서의 건강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6) 산업 안전 보건과 일반 작업 환경에 관한 보건 교육을 철저히 하고

7) 직장에서의 건강 증진책이 근로자의 일상 생활의 건강 상황에게 까지 미치게 하여 무병한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 더욱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산업 보건 연구소들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스웨덴은 1938년에 산업 보건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연구소가 설립되어 1966년에 완전 독립 운영 체제를 갖추었고 핀란드에서는 1956년에 6개의 지방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노르웨이는 오늘로써, 덴마크는 코펜하겐과 오텐스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정 문제의 해결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인 단기 특별 교육 과정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부언하였다.

장래의 산업 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직업 병의 조기 발견, 직업 병과 일 반질 환과의 연계성 여부의 규명, 부상 및 불구자의 직장 복귀 문제, 새로운 공정 빌달에 따르는 산업 보건 학적인 유해성 유무 추궁, 산업 보건 기관과 공중 보건 기관과의 유대 강화, 직장의 근로자에 미치는 산업 심리학 및 사회과학적인 영향 평가, 새로운 산업 보건 서비스의 개발과 그의 촉진, 국제 교류의 강화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5월 6일까지 계속되었으며 특정 집단에 있어서의 산업 보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내용은 5 가지 집단에 대한 교육 훈련 문제를 다루었는데 첫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간호원의 입장에서, 산업 위생사의 입장에서, 또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 보건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가 주된 논제가 되었다.

끝으로 이번 학회의 주최측인 McMaster University는 1887년에 창설되어 금년이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대학교 내의 시설이 깨끗하고 국제 교류와 국내 학술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교내의 Common Building 내의 숙박 시설은 값이 쌀뿐 아니라 아침식사만 제공하는 카페테리아식 식사 제공은 훌륭하고 풍부했으며 Hamilton 시 인근에 캐나다 유수의 제철 공장과 공업지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시간 거리 내에 있어서 본 학회 참석자들이 대부분 참관할 기회가 있었음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려 학회의 모든 진행 절차와 본인의 입국 수속 절차를 맡아준 Muir 박사와 비서 Mrs Yake에게 감사드리며 McMaster 대학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수로서 재직하여 활약하고 계시는 수학교수인 최태호 선생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며 Hamilton의 여러 곳을 안내해 주신 친절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